책을 펴내며

(사)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제17대 국회에 40명의 여성의원이 진출해서 2004년을 '여성정치원년'으로 기록하는가 하면 '세계 여성의 날'을 기해 유엔본부에서는 제49회 유엔여성지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3월 2일 우리나라 여성들의 반세기 동안의 숙원이었던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시점에서 '17대 총선에서의 여성운동의 성과와 전망(가제)'이란 단행본을 출판하면서 현대 한국사회에 있어서 여성정치 세력화 운동의 지형을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아 책의 출판을 기쁘게 생각한다.

역사이래 처음으로 여성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이 두자리 수인 13.4%를 차지하면서 비록 세계 평균치에는 미달이지만 여성의원 비율 세계 101위에서 62위로 39계단이나 뛰어올랐다. 이를 두고 언론은 여성의원이 국회에서 두개의 교섭단체를 꾸릴수 있으며 하기에 따라서는 더이상 들러리가 아닌 실체로서 인구절반의 요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주역들이 되리라고들 한다.

여성정치 세력화운동의 지형이 이만큼이라도 변화된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여성계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해온 운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제17대 총선에서 여성계가 보여준 활동상은 새로운 지도로서 지형의 변화를 예측할수 있었다. 322개의 여성단체들이 결속하여 정치관련제도와 관행 개혁에 주력한 '총선여성연대'의 빈틈없는 활약과 비례직 50%와 선출직 30% 할당제 실시에 대비하여 100여명의 여성후보를 발굴하여 각정당에 공개추천한바 있는 800여명의 여성리더로 구성된 '맑은정치 여성네트워크'의 적극적인 활동 그리고 여성후보가 당선운동과 유권자운동이 필요로 하는 재정마련을 위한 한국여성재단이 함께한 '맑은정치 여성기금운동본부'의 모금운동 등의 유기적인 협조관계의 성과물인 것이다. 여기에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남성위주의 부패정치척결의지가 맞물리면서 제17대 국회에 여성의원들과 과반수이상의 초선의원들이 진출하게 되고 정치문화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제고되어 있는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이책에는 여성의 정치세력화운동의 역사를 비롯해 17대총선에서의 여성계의 대처, 정당들의 반응, 유권자들의 선거행태, 여성정치세력화운동의 비판 그리고 선출직 또는 비례대표직의원의 정치행로의 자기 이야기 까지 담고 있다.

제17대 총선은 여성들이 당대표로서,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정당의 대변인들로서 적극적으로 여성들이 나서서 치른 선거였다. 각정당이 처한 위기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들을 앞장 세웠던 것이다. 그결과 여성들의 정치적 검증을 확실하게 받아내는 결과가 되었다. 이제는 여성정치참여에 대한 편견은 사실이 아닌것으로 확인되기에 이르렀다.

얼마 있으면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필두로 1년여 지나면 지방자치선거가 그리고 이어서 돌아오는 대통령선거, 제18대 총선 등 각급의회 선거가 있게된다. 이 때에 따라서는 이 한권의 책은 여성대통령까지로 내다볼수 있는 한국의 선진화된 정치지형에서